



FOMC 구성원들의 최근 발언 정리 (4/14 기준)

김석환 |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

seokhwan.kim@miraeasset.com

DOVES

NEUTRAL

HAWKS

Board

VOTERS

FRB

NONVOTERS

Alternate

- ※ 연준 부의장(1석) 공석
- (2/21) 라엘 브레이너드 前 부의장은 국가경제자문위원회(NEC) 의장 임명
 - (2/23) 백악관 조만간 부의장 후보 지명 예정



리사 쿡
이사

(4/4) 디스플레이션 과정 일어나고 있지만 충분치 않아. 노동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하며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발생. 신용채널에 더 많은 관심 기울여야



필립 제퍼슨
이사

(3/27) FOMC의 목표는 더 빨리 2%로 되돌리는 것. 그러나 주택을 제외한 서비스와 같이 상당히 지속적인 것으로 판명된 인플레이션 요소가 있어 시간 소요



마이클 바
부의장

(3/28) SVB 사태는 '위험 관리 실패'의 교과서적인 사례.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은행의 반응은 전반적인 신용 가용성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. 이를 예의주시



제롬 파월
의장

(3/22)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.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타이트. 가계와 기업의 신용 조건은 더욱 엄격해져 경제에 영향 미칠 수도



크리스토퍼 월러
이사

(3/2) 최근 뜨거운 경제 데이터는 Fed가 인플레이션 싸움에서 이룬 진전의 정도에 의문을 제기. 그 동안 예상한 5.1~5.4% 범위보다 더 높은 인상 필요할 수도



미셸 보우먼
이사

(3/14) 미국 은행 시스템은 탄력적이고 견고한 토대위에 있으며 시스템 전반에 걸쳐 강력한 자본과 유동성을 갖춰. 이사회는 계속해서 주의 깊은 모니터링 할 것



오스탄 굴스비
시카고

(4/11) Fed는 금융 스트레스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해야. 금융 역풍에 대한 불확실성 감안할 때 신중해야.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지속 강세



패트릭 하커
필라델피아

(4/11) 은행 스트레스 사라지지 않았지만 가라 앉아. 최근 데이터 디스플레이션에 시간이 걸리고 있음을 보여줘. 올해 미국 경제 1% 미만 성장 예상



로리 K. 로건
댈러스

(2/14) 인플레이션 2%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더 나은 균형 필요. 주택 인플레이션 제외하고 핵심서비스 개선되었다는 증거 찾기 어려워



존 윌리엄스
뉴욕

(4/11) 노동 수요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강해. 일부 핵심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아직 싹트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있어



닐 카시카리
미니애폴리스

(4/11) 2% 목표 인플레이션 조정되어서는 안돼. 인플레이션 올해 말까 지 약 3%, 내년에는 2%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.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해서는 시장보다 덜 낙관적으로 봐



라파엘 보스틱 ★
애틀란타

(3/3) 기준금리를 5~5.25% 사이로 인상하고 2024년까지 유지해야. 이를 통해 긴축정책이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수급 균형을 통해 낮은 물가 가능



메리 델리 ★
샌프란시스코

(4/12) Fed는 시스템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모든 은행을 위한 모든 도구 사용할 준비 되어 있어. 올 연말 3%를 조금 넘는 수준의 물가 예상



수잔 콜린스
보스턴

(3/31) 인플레이션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위험과 너무 많이 하는 위험의 균형 맞춰야. 긴축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데 중요



토마스 바킨 ★
리치몬드

(4/12)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했지만 아직 갈 길 멀어. 3월 신용카드 지출은 수요가 냉각되고 있다는 안도감 줘. 5월 회의 전 나 올 PCE와 ECI 데이터 중요



로레타 메스터 ★
클리블랜드

(4/4) 인플레이션 연말 3.75%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. 연준 은행 시스템 스트레스 징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. 긴축된 재정 여건 경제 제약할 것



제임스 불러드
세인트루이스

(4/6) 연준은 5% 이상의 금리가 필요하며 내 예측은 중앙값보다 높아. 강력한 고용시장은 연준에게 인플레이션과 싸울 여지를 제공. 은행 대출 수요 여전히 견고



켈리 듀버트
캔자스시티(2.1~임시)

NONVOTERS

※ 직무대행